

“무주반딧불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친환경 실천 주도 성황리 막 내려... 다양한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 진행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폐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유송열(사)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광객들과 주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입장퍼레이드 사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라인댄스팀과 합창단,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싸움아비팀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군민의 장 시상과 감사패 전달,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군민 대합창 ‘반딧불축제 주제 가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민의 장 문화체육장은 안성면의 박찬석 씨가, 산업근로장은 부남면의 박민철 씨가, 효행장은 안성면의 임옥순 씨가, 애항장은 재부산무주군민회 문우철 씨가 수상했다.

또 무주농협 광동열 조합장과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 무주군산림조합 박철수 조합장, 무진장축협 송재국 조합장, 안성면 금농식품 강신정 대표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바가지요금과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개념을 다한 축제로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고 친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다행히 많은 분이 만족해 주셨고 반딧불축제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태환경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여세를 몰아 사람과 자연

이 공존하는 자연특별시 무주,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무주반딧불축제를 각인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였던 무주반딧불축제는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5년 연속 명예문화관광축제, 2024 퍼니클리어워드 에코투어리즘 분야의 축제로 선정되며 그 차별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반딧불 소풍’ 등 체험, 라바전 등 전시, ‘환경콘서트’ 등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축제 기간 다양한 방법과 장소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에코파노라마’를 비롯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반

디페트&재활용품 경진대회’도 방문객들의 동참 속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기존 시설을 활용해 축제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별도의 친환경존을 만들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군에 따르면 한풍루 수목등을 비롯해 야광 조형물 등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사용했으며 폐현수막으로 그늘막과 앞치마를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했다.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을 현장에 세팅하고 행사장 밖에서 가지고 온 플라스틱 음료수병 등을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쓰레기 수거함도 설치해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방문객 김 모 씨는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생각, 실천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9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안고원 시장에서 군청 직원 및 유관기관이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안고원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군,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9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안고원 시장에서 군청 직원 및 유관기관이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은 경기침체 등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고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병하 부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을 돌며 매출감소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장보기 실천 독려를 위해 장바구니도 나눠 주었다.

진안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군청 및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자율 장보기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3일은 군청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을 임시 휴일로 정해 진안고원시장 식당을 비롯한 관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하 부군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민께서도 음식 구매하실 때 진안고원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최훈식 장수군수는 9일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 대표 경로당, 노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를 방문해 시설편 백미(20kg) 3포를 전달하고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지역에 온기를 나누는 문화확산을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군수는 명절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수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며 “추석을 맞아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군민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램프상권 열장행사’ 상품권 환급 진행

추석을 앞두고 무주군이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무주램프상권 열장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장행사(열심히 장보기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무주램프상권 내(무주읍 장터로, 적천로, 주계로, 단천로, 향화로 일원) 점포에서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당일 영수증 합산 3만 원부터 이용 금액에 별도 상품권 환급

(최대 2만 원)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무주군청 차임터 앞(주계로 105)과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주계로 48)에서 구매영수증과 신분증 확인(13:00~17:00) 후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3만 원 이용 시 무주사랑상품권 5천 원, 6만 원은 1만 원, 9만 원은 1만 5천 원, 12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청렴문화 정착 ‘주력’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예방교육 실시

무주군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9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신규자, 승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로 함께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허정 시기관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 시기관은 △사적 노무 요구 금

지를 비롯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갑질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등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라 이해가 쉽고 사례 중심이다 보니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었다”라며 “내용을 영두에 두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갑질과 부정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로 초빙된 허정 시기관은 충북도청 법무혁신 담당관으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